

‘서신원’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준말임

<3월호>

<총장칼럼>

월간 서신원

제 3호(vol.1-3)
편집인: 장석조교수
발행인: 권호덕총장
발행소: 서울성경신학 대학원대학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칭의(稱義)



권호덕 총장

목회하던 시절 어느 날 청년 한 사람이 지병으로 죽었을 때, 연락을 받고 급하게 심방한 적 있다. 아직 얼굴 모습은 그

대로인데 몸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희귀병으로 고생하다가 인생의 꽃 한번 피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은 죽음일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인간들이 이 죽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를 보여준다. 이집트의 미라는 몸의 부활을 꿈꾸던 소원의 결정체이고 환생설 내지 윤회설 역시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마음의 염원과 관계한다.

성경도 죽음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취급한다. 창세기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요셉의 관(棺)으로 끝을 맺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준다. 성경에는 죽었다는 표현이 무수히 나온다. 그런데 성경이 심각하게 여기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곧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 성경 전제가 주목하는 죽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떨어진 그 상태, 원죄의 상태, 상속죄의 상태, 죽음의 행실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은 이 상태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하고 어리석으며 시기 질투하며 잔인하고 병들고 늙어가다가 마침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비참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지금 눈으로 보며 살고 있다. 이 문제는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러 생명과학을 발전시키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이 말한다. 그런데 현대 의학을 통해 아무리 생명이 연장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이 비참한 죄악의 상태에서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성경은 이 실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가르칠까? 성경은 ‘사망의 상태’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죽음의 원인을 죄로 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예수의 부활은 이 죄

를 해결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사역을 ‘구속언약’의 완성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만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죄인들을 구속하여 구원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문제를 두고 언약하는 일이 있었다. 성경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었음을 가르친다. 그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육신이 되셨다. 그는 그 연약함 속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은 그가 온전히 구속언약을 이루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온전히 순종함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그는 성부로부터 ‘옳다’ 하는 언도 곧 칭의함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즉 부활은 그가 성부로부터 칭의함을 받음에 대한 증거이다. 우리 죄인들은 그의 부활을 통한 칭의(稱義) 받음에 근거하여 죄용서함 곧 칭의(稱義)함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4:25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잘 이해되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면에서 ‘칭의’ 전문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해석은 참으로 통찰력 깊은 것이다.

첫 아담은 행위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칭의함을 받지 못했다. 만일 그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 주어진 언약기간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했다라면 칭의함을 받고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는 ‘영화 상태’로 도약했을 것이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의 아담의 잘못된 결단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시되 첫 아담보다 모든 면에 불리한 조건 속에서 오셔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 단순히 미래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측면만 강조한다면 부활의 의미가 상당히 상쇄 될 것이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칭의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설명하면서 세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한 것임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마지막 심판 때 영생으로 살리시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부활과 구원은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정한다는 말이다.

<교계소식>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가 밝힌 사순절 절기의 비성경적 이유>

기독신문 03/19/2015 07:30

1.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 밤까지 40일간 이어지는 로마교회가 정한 수난주간 기념행사이다. 이 40일간에 로마교회는 금식을 하고 금식을 권장하고 또 음식을 제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육제를 하고 고기를 많이 먹은 후 고기 양을 점차 줄여가다가 고난 주간과 특히 금요일에는 완전히 고기를 금지하였다.

2. 사순절을 종교개혁은 완전히 폐지하였다. 특히 칼빈은 종교개혁은 사순절이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공로를 세우며 금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고 주장하고 실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였다.(칼빈, 기독교강요 IV. 12)

3. 칼빈은 사순절 기간에 금식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였다. 금식을 열심히 준수하면서 거짓되고 유독한 의견으로 부패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식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고 제시하였다(강요IV, 12, 19). 하나님도 마음의 변화 없이 금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성경대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외식적인 금식은 가장 큰 혐오라고 제시하였다. 또 금식을 의무인 것처럼 엄격하게 지킴도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강요 IV, 12, 20).

4. 칼빈은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킴이 널리 퍼졌다고 개탄하였다. 그리하여 사순절을 지킴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착각하였고, 예수의 모본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 연례적으로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주님은 모범을 위해 금식하지 않고 복음 선포의 장비로만 금식하였다고 칼빈은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이 반복적으로 금식하지 않았고 구약에서 모세가 금식하였지만 선지자들이 그 모본을 따라서 금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강요IV, 12, 20).

5. 사순절 기간에 로마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 예배가 고기를 금하는 것으로 여겨 고기는 금지시키고 다른 단 것들을 사제들과 다른 평신도들이 먹었다. 오히려 더 성대히 고기와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금식하였다고 칼빈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금식이 폐지되었다고는 칼빈이 결코 말하지 않고 재난의 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할 것으로 말하였다(강요 IV, 12, 17).

6. 우리교회가 이 사순절을 교회의 경절로 채택하여 지키기로 하면 우리도 로마교회처럼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해야 하고 또 고기를 그 기간에 먹지 않게 되며 그러면 고기 먹는 것을 위해 사육제를 열 것이다. 그래서 많이 먹고 점점 줄이다가 완전히 줄이는 일을 할 것이다.

7. 긴 40일간에 걸쳐서 사순절 금식과 고기 금지 등을 하고 절야를 하게 되면 신자들이 이런 경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양심이 심히 피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사에 참가하면 정상적인 사업과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형식이 되고 외식적이 되어 로마교회처럼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8. 사순절을 교회의 경절로 받아들여 지키게 되면 로마교회가 지키는 많은 다른 교회 경절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강절, 주의 현현절, 삼위일체 주간, 고난 주간 등등 참으로 많은 절기들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9. 이렇게 사순절과 다른 절기들을 로마교회의 습관대로 지키게 되면 많은 신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마침내 이럴 바에는 모든 것의 원형인 어머니 교회인 로마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결론)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받아서 부활시키고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사순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경절로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제 84회 총회 신학전문 위원회)

“기독교영성의 사회적 의미와 방향성 고찰”

하나님 형상따라 자유실현하는 국가가 발전 가능성 내재. 사회변혁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 절감하는 목회관 필요



기독교학술원(이사장=이영엽목사·원장=김영한박사)은 제42회 신년기도회 및 발표회를 지난 2일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갖고, 기독교영성의 사회적 의미와 방향성, 그리고 담론형성의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특별히 이날 발표회에서는 한국사회의 정신적 방향과 교회의 영성이란 주제로, 영성의 사회적 접촉 가능성을 성경적, 목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했다.

십계명 암송문화 조성 필요

첫 번째 발표에서 김상복총장(횃불신대)은 한국사회의 정신적 방향과 교회의 영성: 성경적 관점이란 주제로, 성경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내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고찰했다. 이어 김총장은 “어느 제도도 완전한 것은 없지만 모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중요시하는 제도와 한 사람 통치자의 존엄만이 중요한 제도는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내재된 이성과 감성, 영성과 도덕, 사랑과 정의, 창의력과 자유가 만발할 수 있는 제도와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된 나라와 국민이라야 발전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고 덧붙였다.

‘십자가 아래’의 목회적 정직 절실

박종화목사(경동교회)는 한국사회의 정신적 방향과 교회영성: 목회적 관점을 주제로, 목회사역 가운데 사회변혁과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지를 고찰했다. 특별히 박목사는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할 일, 곧 교회의 사명을 ‘빛과 소금’에 빛 대 설명했다. 박목사는 “교회는 세계를 위한 영적, 정신적 목회자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교회의 세상을 위한 제사장적 직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이 거꾸로 교회를 염려한다는 현실에서 보면, 교회의 세계 내적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밟혀버릴 수 있음을 뜻한다. 세상의 요구는 교회가 시대의 정신으로, 세계의 혼으로, 인간사회의 영혼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웃사랑과 동정의 미덕 고취

세 번째 발표는 박봉배 박사(감신대 전 총장)가 한국사회의 정신적 방향과 교회 영성: 윤리적 관점을 주제로, 도덕적 해이로 아픔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회복의 영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찰했다. 박박사는 “세월호사건과 같은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탈세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 영성이 불안정하고 불법이 판치는 오늘의 한국사회를 향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를 깊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박사는 “오늘 우리 한국사회가 자기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법도 외면하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사회적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의 영성의 실질적이지요 바람직한 방향을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박사는 “현대의 성공위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이웃 사랑과 동정의 미덕은 어디로 살아져 버렸는가?”고 반문하며, “앞만 바라다보는 경쟁적 질주사회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옆을 바라다보며 뒤를 살펴보는 사랑과 동정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교회는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병들어 고생하고 세상의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무엇인가 사랑과 동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입장에서 한국교회의 영성 운동이 획기적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기독교신문 2015-01-17 13:41:37)

“한국장로교회 한교단다체제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학술원 제 47회 학술공개세미나가 2015년 5월 18일 오후 2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서 열린다. 먼저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목사의 인도 하에 경건회가 열리고 그 다음 이 종윤 목사 인도로 이 주제로 2가지 강좌가 개최된

다.

1강 발제: 박경수 박사(장신대, 교회사) “한국장로교회의 한교단다체제의 허와 실”

응답: 이상규 박사(고신대, 교회사)

2강 발제: 김정우 박사(총신대, 구약학) “한국장로교회의 한교단다체제가 한국교회연합에 미치는 영향”

응답: 최갑중 총장(백석대, 신약학)

<학교소식>

1.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본교는 역사적 정통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며 전형적인 개혁신학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유능한 목회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논문을 쓸 수 있는 대학원대학교를 추구한다.

2. 본교 ‘학교 특성화 계획 위원회’가 조직되어 타 대학원 대학교와 차별성을 둔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성경 주석을 잘하고 이 주석에 근거하여 성경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설교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바른 신지식을 전달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건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3. ‘한국어교육원’ 개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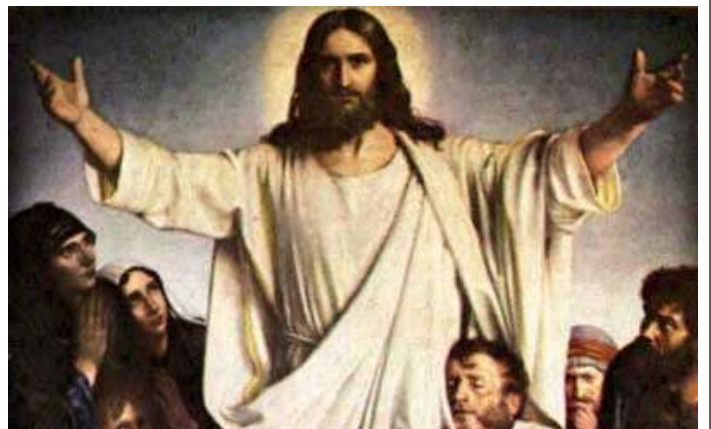
4. 본교 배춘섭 교수(선교학)는 지난 3월 14일 ‘한국개혁신학회’에서 ‘영적전쟁에 관한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평가’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좋은 논의를 일으켰다.

5. 본교 장석조 교수(신약학)는 2015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층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회’ 월례회에서 “사도행전의 구조와 주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좋은 논문을 발표하여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게 했다.

<학회소식>

1. 2015년 4월 25일(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한국복음주의 신학회’가 열린다. 우리 학교도 이 학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참석한다.

2. 2015년 5월 9일(토) 장신대학교에서 ‘한국개혁신학회’가 열린다. 주제는 ‘이종성박사’이다. 그의 신학의 공헌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러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부활하신 주님

<레위기 주해>



레위기 제 2장 주해(3)

임창일 교수(구약학, Ph.D.)

1. 개요

본장은 소제(素祭, Meat Offering)에 관한 율법을 기록한다.

소제는 고운 밀가루, 그 밀가루로 구운 떡, 예물로 드린 첫 열매를 볶은 곡식으로 드린다. 소제물에는 기름과 소금을 섞었고, 유향을 첨가하기도 한다. 소제란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예물” “선물”을 뜻한다. “민하”란 처음엔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다가 후에는 식물로 된 예물을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 결국 소제란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기름과 향과 소금과 함께 드리는 제사이다.

2. 소제물의 종류

(1) 고운 가루(2:1-3): 고운 가루는 체로 쳐서 얻은 밀가루로 거친 가루와 구별된다. 이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가루가 되도록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수고를 상징한다. 신자들은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수고하고 순종해야 한다(삼상 15:22-23).

(2) 요리한 가루(2:4-13): 무교병이나 무교전병, 번철에 부친 것, 솔에 삶은 것이다. 소제물은 항상 고운 밀가루이고, 기름과 함께 드렸다(신 8:8).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발효되지 않은 무교전병처럼, 죄 없이 살아야 한다(히 9:28). 소제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3) 첫 이삭(2:14-16): 첫 열매 즉 처음 익은 곡식이다. 첫 이삭을 불에 볶아 짙은 것으로 드린다. 하나님은 첫 소산을 자원하여 드릴 때에, 그 예물과 헌신을 기뻐하신다(신 26:2). 성령의 첫 열매와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즐거이 받으신다.

3. 소제의 특별법

(1)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금지한다(11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었다. 신약에는 누룩을 “교만과 위선”의 상징이다(마 16:6; 막 8:15). 우리는 누룩이 없는, 즉 죄악이 없는 순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소제에 꿀을 금한 것은 달콤한 육체의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이다(잠 25:16,27).

(2) 소제물에 치라는 소금(13절)은 “언약의 소금”을 의미한다. 소금 언약은 영원하다(민 18:19; 대하 13:5). 짜게 만들어 보존하는 소금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누룩과 꿀과 대조적이다.

(3) 소제에 필요한 기름과 유향은 성령을 상징한다(행 10:38). 소제물에 기름을 치는 것은 모든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는 뜻이다(요 4:24).

(4) 소제를 집행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히 4:14-16).

(5) 제사장은 소제물 가운데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야 한다.

4. 소제의 의미

소제는 육체의 노동으로 얻은 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소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노력과 정성을 바치는 제사이다. 소제물은 모두 다 일용할 양식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소제란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어준다. 번제가 피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나타낸다면, 5대 제사 가운데 피 없이 드리는 소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낸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졌다. 번제 다음에 소제를 언급한 것은 두 제사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이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다. 물론 가인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이 드러진 제사이지만(히 11:4), 동시에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막과 성전에 비치된 진설병은 결국 소제물이다.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은 이스라엘 전체가 드린 예물이다.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모든 의로운 노력을 의미한다. “생명의 떡”(요 6:48)이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것은 친히 소제물이 되신 것이다.



<교회소개>

‘순장교단과 동천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며...



송경한 목사(동천교회 부목사)

우리 교단의 시작은 1938년,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탄압아래 많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항거하며 신앙절개를 지키며 당시 교회지도자였던 이 계실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에 반대하고 신양투쟁운동을 전개하면서 뜨거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끝까지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고 청교도적 순수한 믿음과 투철한 보수신앙을 지키므로 시작되었다.

그중 우리 동천교회(옛 덕천교회)의 머릿돌은 1921년 함경남도 함주군 덕천면(나중에 동천면) 풍서리에서 함남노회에 속한 함흥남부교회 개척전도자들에 의하여 진 기종영수(함흥 영생중학교 진명선 체육교사의 조부)의 5평 초옥에 예배처소를 마련함으로써 시작하게 되었다.



역대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다.

- 1대 이계실 목사(창립-1971년)
- 2대 유영교 목사(1971-1975년)
- 3대 이죽봉 목사(1975-2004년)
- 4대 전충현 목사(2004-현재)

북한교회 전문가 유관지 박사에 의하면 ,

덕천교회는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섰던 교회였다. 북한에는 해방 전에 덕천교회, 또는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교회로, 평안남도 덕천군의 덕천읍(德川邑)교회, 평안북도 용천군 부라면의 덕천동교회(德川洞教會)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덕천교회는 함경남도 함주군 동천면(東川面) 풍서리(豐西里)에 있었던 덕천교회이다.

이 교회들은 모두 장로교회들이었다. 한반도에서 제일 북쪽은 함경남도 온성군 풍서리인데, 덕천교회가 있었던 풍서리는 그 풍서리가 아니다. 풍서리란 이름은 아주 흔했다. 덕천교회는 1921년에 세워졌다. 초기에는 어떤 분들이 담임했는지 기록을 잘 찾을 수가 없다. 1930년대 후반부에는 이계실(李桂實) 목사가 담임하고 있었다. 이 이계실 목사와 덕천교회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덕천교회는 이계실 목사 때문에 널리 알려졌다고 할 수 있다. 이계실 목사는 함경남도 함주 출신인데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고 전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함흥성경학원에서 공부하고, 이어 1931년에 평양장로회 신학교를 26회로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 목사는 처음에는 함주에 있는 북주동교회(北州東教會)를 담임했고, 1938년에는 덕천교회(德川教會)를 비롯하여 동덕천교회(東德川教會)·기곡교회(岐谷教會)·상수리교회(上水里教會)·장흥교회(獐興教會), 다섯 개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

이계실 목사는 대단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었다. 함경도는 캐나다장로회가 선교를 담당했는데 캐나다 선교사들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선교사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다고 한다.

1938년에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에서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27차 장로교 총회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교파들은 일찌감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고 장로교가 버티다가 손을 들고 만 것이다. 이계실 목사는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자 담임하고 있던 다섯 개 교회를 이끌고 즉시 장로교 함남노회에서 탈퇴해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반대하면서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계실 목사를 따르던 교인들이 경찰에 끌려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 당시 주기철 목사를 비롯하여 신사참배 반대운동가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이계실 목사는 함경도 지역을 대표하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가였다.



담임: 전충현 목사 현재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교회의 전경

당시 덕천교회는 주변의 5-6개 예배 처소 교회와 한 그룹이 되어 맥레 선교사의 지도 아래 있는 교회중의 하나였다. 이 계실 목사님이 담당하게 된 곳도 이 때이다. 이에 덕천교회, 동덕천교회(동상리교회), 상수리 교회(능앞교회), 장흥교회(주북교회), 기곡 교회 등 5개소 교회는 이계실 목사님의 지도하에 있게 되었고 이후 일제탄압과 8·15 해방 후 공산치하에서와 6·25이후 거제도 피난의 대 이동의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동천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그후 그 순결하고 자랑스러운 신앙을 이어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순장) 총회가 구성되었고, 계속해서 한국 내 뿐만 아니라 미주와 캐나다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곳곳에 지교회들이 세워지므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 사역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절개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현실의 이익에 쉽게 손을 내미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다시 한 번 우리 순장교단의 모체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와 다음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며 지켜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된다.(동천교회 80년사, 순장교단 70년사)

<사도행전 주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장석조 교수(신약학, Ph.D.)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의 서문에서 그 주제를 명시하지 않고 그 대신에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의 주제를 “하나님나라에 관한 일(들)”(τὰ περὶ τῆς βασιλείας τοῦ

ἑοῦ)로 명시한다(행 1:3). 이것은 사도행전의 주제도 누가복음의 주제와 일관성있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암시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는 서문의 둘째 단락을 시작하고 제자들의 질문 형식으로 명시되기 시작한다(행 1:6).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를 주제로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적 단어를 2-7장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8장 12절에 가서야 다시 사용하고 전체적으로도 겨우 8회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행 1:3,6; 8:12; 14:22; 19:8; 20:25; 28:23, 31). 누가는 왜 사도행전의 주제로 명시한 “하나님의 나라”를 1장 6절에서 명시한 이후 첫 대 단원을 마치는 요약구절인 6장 7절까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의 주제로 명시하고 있는 서두와 결미의 두 구절을 관찰하는데서 시작할 것이다. 이 두 구절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다(행 1:6; 28:31).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가 언급되는 구절들을 관찰하면, 누가는 구약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주 (예수)”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 (예수)”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처음 언급된다. 칼반이 주석하듯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자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재교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나라의 회복을 육신적 이스라엘에 한정시키는 큰 착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사도들의 미숙한 질문(행 1:6)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를 ‘하나님나라의 회복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주 (예수)”가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나라”의 회복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의 디딤돌이 된다.

“주 예수”(ὁ κύριος Ἰησοῦς)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두 번째 언급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의 승천까지 경험한 후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한다. 부활과 승천 등 구속사역의 전개에 따라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증거해야 할 대표적인 구속사역은 “예수의 부활”이다. 베드로는 사도의 필수 자격을 요한의 세례, 즉 예수님의 공적 행하심과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의 부활과 승천까지 사도들과 함께 출입하며 체험한 목격자로 제시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모든 일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δεῖ)함을 대표적인 사역으로 삼는다. 이 구절에서 “주 예수”는 부활과 승천의 초월적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에도 사용되고 있다.

“주 (예수)”가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세 번째 언급된다. 사도의 보궐선거를 위해 베드로와 함께 모인 예루살렘교회도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후 “주님”으로 호칭하면서 기도했다.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언급은 사도행전 2장 34, 36절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은 초대교회의 고백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마28:18, 빌2:11참고) “주”의 천상적

등극으로서 구약의 등극 시 시편 110편의 예언이 성취된 구속사역으로 설명된다. 누가는 “주” 기독교론의 결정적 선포를 위하여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승천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1:2, 9, 11, 22).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예수님이 지상사역의 결정적 국면에 가르치신 가르침을(눅 20:42이하) 제대로 계승하는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원래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초월적 선재의 “주”이시다.

사실 누가복음에 가장 먼저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도 누가복음 제 1막(1:1-4:13)에서 단 한 번 언급되는데(눅 1:31-33), 거기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셔서 다윗 언약(삼하 2:4; 7:12-16; 시 2:7; 89:26-29)을 종말론적으로 성취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왕적 그리스도이심을(사 2:5; 7:9; 9:7; 11:1; 52:7) 부각하고자 한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나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사 무엘하 7장을 성취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왕적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당시 구약과 유대교의 메시아사상과 연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들이 유대교의 좁은 기독교론에 갇혀 있길 원하지 않으셨다(눅 20:42이하). 사도들은 부활과 승천의 주님을 경험하고 승천의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가서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하는 그 좁은 기독교론의 우물에서 탈출하여 시편 110편을 성취하는 다윗의 주님으로서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우주적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전파하고 그것을 완전히 계시하시고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주제를 펼치고 있다. 하나님나라의 전파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행 28:31)은 오직 승천하신 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만 가능한 것이다(행 2:33). 사도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성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이해하며 구원을 맛보았다(행 2:21, 40, 47) 오늘날 우리도 성경,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승천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점진적 계시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나라의 회복, 즉 종말론적 구원이 어떻게 땅 끝까지 전개되는지 확실히 깨달으며 그 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맛보는 기쁨과 행복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있는 증인들이 되길 기대한다.(다음호에 계속)

<교회 탐방>

문제는 나네?



박기용 목사(광주 성산교회)

교회 안에는 전도에 대한 참으로 특이함이 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강단

에서 전도를 강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부담부터 밀려온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자신감의 결여이다. 그 이유인 즉은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내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전도를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 앞에서 가슴에 띠를 두르고 손에 뿔가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교회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피하고, 무시하고, 잠시라도 틈을 내주려 하지 않는 자기 방어에 들어간다.

이러한 현실에서 목사인 나도 사실 자유롭지는 않다. 강단에서 참으로 많이도 외쳤지만, 길거리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목사인 내 스스로가 그러니 아무리 성구를 외치며 전도하라고 한들 교회나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무슨 힘과 담대함을 얻겠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목사라는 점이 전도라고 하는 주제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였다. 작년의 일이다. 우리 교회에 화요일마다 문서 선교팀이 있어서 교인들의 애경사를 챙기며 엽서를 보내고 있다. 하루는 그 선교팀에서 나에게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 한 방 먹었다’ 많은 방법론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고, 열띤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짧은 순간동안 많은 생각에 잠겼고, 그 동안의 내가 한 없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고 기도로 준비하였다. 이 일에 우리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기를 원했다. 물론 그 안에 제일 겁 많고 소심한 내가 굳게 서야만 했다.

우리 교회에는 5개의 남녀 선교회가 있다. 각 선교회에는 회비로 자치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명칭이 선교회로서 그 회비가 더 값지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선교회의 임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매월 2만원씩 전도비 지출을 해주시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성산교회에 노방전도특공대가 생기게 되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문서선교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딱 1시간이다. 이벤트 행사가 아닌, 끝까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에 항상 그 시간,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노방전도를 해야 했다. 이 계획을 전 성도들과 나누었을 때에 함께 참여하고 싶는데 직장관계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성도들의 지혜로 매월 마지막 주는 화요일이 아닌 토요일 오후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노방전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꼭 전도하는 화요일이면 일기가 도와주지 않는다. 매서운 한파와 꽃샘추위가 왔고, 어떤 때는 매서운 바람으로 천막을 두른 두꺼운 벽면을 날려버리기도 했다. 전도특공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노방전도를 사수하기로 다짐했기에 춥고 불편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단이 불안하기는 한가보다.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래서 기를 쓰고 나간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건빵을 예쁘게 포장을 하고, 따뜻한 차를 끓이고, 전도지를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공격한다.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났다. 전도를 하는 내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 그 모습들이 그렇게 곱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지 않았는가? 도착해서 천막을 치면서도 여전히 두근거린다. 떨린다. 두렵다. 그래서 더 기도한다. 더 성령을 의지하며, 내 입에 전할 말을 달라고 애원한다. 그리고 첫 사람을 만난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난다. 너무나 이상한 것은 ‘뭐지?’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긴다.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지나다가, 힘내시라고, 수고하신다고 말해 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동질성을 크게 갖게 된다.

올 해 시작한 이 노방전도로 아직 교회에 방문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괜찮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길에서 전해준 전도지와 들려준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울 때가 있으리라는 소망 때문이다. 사람들을 붙들어 우리 교회에만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지 않는다. 어느 교회로든지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으면 족하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내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노방전도의 현장에서 함께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근처로 왔을 때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준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당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속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는지를 소문 듣고, 모든 이들이 정신을 놓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런 여리고를 두려워했다. 광야의 1세대들의 보고를 봐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두령들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땅이라고 포기

선언을 했고, 그 말에 모든 백성들이 동요했다. 그 결과는 아무도 1세대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기대하신다. 주시리라 한 땅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는 무너졌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

전도할 때, 사단은 정신 줄을 놓을 것이다. 혼비백산할 것이다. 복음을 들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침투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함께한 성도들은 그 승리의 맛을 보며 영적 기쁨에 휩싸여 교회로



돌아온다.

성산교회에서 첫 담임의 사역이 만 5년째로 접어드는 초짜인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나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게 한다. 목회에 대한 고민과 나를 성찰게 하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부족한 한 인간을 오늘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성산의 성도들이여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북한 소식>

탈북자 2명, "북한 정치범20만 인권유린"

[중앙일보] 입력 1998.02.27 00:00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 크레이그 토머스) 간담회에서 증언중인 북한 귀순자 강철환.이순옥씨는 25일 북한에는 현재 20여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미국 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강씨는 특히 자신을 포함, 3만5천명이 수용됐던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옥수수죽과 반찬없는 소금국만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탈출하려다 적발된 사람들은 현장에서 총살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평남 개천교화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수용소 생활중 고문과 구타로 거의 반신불수가 됐다" 며 "북한당국은 난쟁이나 장애인들에게 불임시술까지 강요한다" 고 폭로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



“사탄의 의심”

박영준 교수(구약학, Dr.theol.)

욥기 1장 7절 이후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시작된다. 7-8절에서 이어지는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은 이미 욥을 알고 있고 그의 경건함을 주의 깊게 보고 왔다. “욥도 보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사탄은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욥의 경건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까닭 없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히남(נָּאֵם)은 “헛되이” 혹은 “공짜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참고, 창 29:15; 사 52:3). 즉, 사탄이 보기에 욥의 신앙은 그가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재물과 자식의 복 때문이라는 것이며, 9절에 나타난 그의 질문은 결국 하나님 경외라는 결과와 현세의 복이라는 원인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사탄의 의문은 기존의 고전 지혜(특히, 잠 10-29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인과응보적 법칙에 대한 의문이다.

고전 지혜의 인과응보적 특징

잠언에서는 인생의 인과응보적 특징이 나타나며(예를 들어, 잠언 10장 17, 24, 30절; 11장 2, 3f., 6, 17f.절; 12장 14, 21, 24, 28절; 14장 27절; 15장 9, 24절; 16장 5, 7, 9, 18절; 17장 13절; 18장 10, 11, 16절; 19장 4, 5, 7, 21, 23절; 20장 13, 17, 24절; 21장 18, 20f.절; 22장 f.절; 26장 27절 등등.), 여호와와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의 설립자이며 유지하는 분으로 묘사된다(특히, 잠 24:12; 25:21-22). 여호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의 실용적이며 윤리적인 지혜의 바탕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올바른 질서를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잠12:1). 따라서 이러한 질서에 따른 행동은 행복을 그 결과로 약속해 주었다.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Tun-Ergehens-Zusammenhang) 또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래서 고전 지혜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상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혜자의 성공은 보장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응보 법칙은 자연스럽게 여호와 경외 사상과 연결되었다(잠 10:27; 14:26; 15:16; 16:6; 19:23; 22:4; 23:27f.; 24:21f.; 28:14; 31:30). 특히, 잠언 22장 4절은 여호와 경외와 인과응보 사상의 결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잠언 10장 27a절은 여호와 경외로 인해 삶의 육적인 부분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 경외는 확신과 피난처를 제공한다 - 이것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해당된다(잠 14:26). 또한 재

앙 뿐만 아니라(잠 19:23), 죽음도 피할 수 있게 해준다(잠14:27).

그러나 이러한 잠언에 나타난 인과응보적 법칙은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이 당연하다. 이것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명제가 아닌 원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경외와 현세의 보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신학적 고민이 사탄의 질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0절로 이어지는 의문과 제안을 통해서 사탄은 자신이 9절에서 말했던 ‘빈정거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탄은 욥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감싸고 보호하시고 있으며, 만약 그 보호막 같은 울타리가 없어진다면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탄이 보기에 욥의 신앙의 동기는 눈에 보이는 재물의 복을 넘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세적인 물질적 복 때문이었다. 사탄은 확실히 욥의 순수한 신앙의 동기를 의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선적인 욥의 신앙을 벗겨버리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결국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고 욥의 인생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번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모든 경건의 행동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욥에 대한 사탄의 의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실 이후에 벌어지는 욥에게 닥친 끔찍한 일들의 원인이 욥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었다는 것이 욥기 전체의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의 경건이 현세적 복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이스라엘에 퍼져있는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으려면 욥의 고난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욥의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사탄의 의심과 이어지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게 된다. 예배와 구제, 이웃 사랑 같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무엇 때문이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향해있는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메시지 개요와 흐름에 대한 제안

- 1)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 사탄의 의문에 대한 설명
- 2) 사탄의 의문에 대한 신학적 의도에 대한 설명
- 3) 본문의 신학적 의도와 메시지를 현재 우리에게 적용(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혹시 사탄의 의심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 4) 가르침과 다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장로교 기원과 역할(2)

이정현 교수(실천신학, Ph.D.)

III. 장로의 역할

역사적으로 볼 때 장로제도와 장로의 역할은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행한 정치제도에서 그 답을 찾을 것이다.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목사, 교사, 장로와 집사 등 네 가지로 보았고 각 직분자의 역할도 명시했다. 칼빈이 1541년에 쓴 “교회헌법”에서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으로 보고, 설교 사역과는 구별되며 성도들을 다스리는 사역이라고 보았다.’ ‘장로는 회중의 영적생활을 관찰하며 권면하되 특별히 형제애를 가지고 치리하는 자였음이 분명하다.’ 그가 쓴 ‘회중을 관찰, 권면, 치리’라는 말에서 장로의 역할을 엿볼 수 있겠다. 결국 칼빈은 장로는 목사와 달리 성도들을 관찰 권면하고 교회의 제반 문제들을 치리하는 자로 보았다. 실제로 그가 제네바에서 행한 당회록에서도(1542-1544년) 이 같은 장로의 기능이 여실히 보인다.

칼빈의 장로제도와 장로의 역할은 낙스의 ‘교회정치와 권징’(The Policie and Discipline of the Church)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1560년)와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의 제2치리서(1581년)에도 미친다. 낙스는 ‘장로는 교회의 모든 공적인 일에 목사를 도와야 한다.’고 했고 목사의 주재 하에 지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지도하는 치리회인 당회원이기도 한 장로는 집사와 같이 1년 임기로 회중의 자유투표로 피선되나 재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낙스가 죽고 난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멜빌은 낙스의 제1치리서를 개정, 보완하여 제2치리서로 만들어 선포하였다. 이 치리서는 시정과 교회정치를 분리했으며, 교회 정치를 교리, 훈련, 성찬 등 3부분으로 구분했고, 교회 공직을 목사(감독), 장로, 집사로 구분하였고, 여기에 박사와 교사를 덧붙여 놓았다. 제2치리서 4항과 6항에서는 장로의 역할을 이렇게 적고 있다. “장로 직분은 공동 및 개별적으로 공적 사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양 무리를 부지런히 보살피어, 신앙이나 행동의 타락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4) “병자를 심방하고, 목사를 돕는 것이 장로에게 적절하다.”(6)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은 주로 양 무리를 보살피어 목사를 돕

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장로제도와 장로의 역할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도 영향을 주어, 채택된 “정치모범”(1645년)에 기술된다. ‘개교회의 모임’항에서 “교인들의 지식과 영적 상태를 심의하고 권면하고 꾸짖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일은 히브리서 13:17과 데살로니가전서 5:12와 에스겔 34:4로 증명된다.”고 말한다. ‘교인들을 심의, 권면하고 그리고 징계하는 일’이 장로의 역할이었다.

한국교회의 장로교회헌법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과 예배모범에 근거하여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 온 청교도, 프랑스에서 온 위그노, 네덜란드에서 온 칼빈주의자, 스코틀랜드에서 온 장로교인, 북아일랜드와 독일에선 온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결정된 미국의 장로교회의 지대한 영향을 입어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개혁교회 문서들과 미국 장로교회를 염두에 두고 현 교회 헌법에 나타난 장로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 규정된 장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여기에 대해 박윤선 목사는, ‘치리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고 해설 하였다. 2. 교인의 도리오해나 도덕상의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도리오해란 성경의 교리를 오해하여 그릇되게 믿는 것을 말한다. 목사의 설교를 오해하거나, 성경에 무식하여 불건전한 집회에 참석, 오염되어 그릇되게 믿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도덕상의 부패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장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시하는 일을 한다. 3. 교우들을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하는 일을 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나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해설한다. 화란과 남아공의 장로들처럼 1주일 내내 맡은 구역을 심방하여 주일에 목사에게 보고한다. 4. 장로는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라.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로 설명한다. 5. 장로는 특별히 심방할 자를 찾아 목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이 헌법에 기술된 장로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의 역할은 교회의 신령상의 일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심방하라는 것이다. 장로의 다섯 가지 역할이 심방과 교우들을 돌보는 일에 치중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를 대신하여 설교하려고 해서도 안 되

고, 집사를 대신하여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재정을 맡아서도 안 되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심방하고 치리 감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장로교회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와 화란 장로교회의 장로들이 구역을 나누어 매 주간마다 몇 개의 리스트에 따라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심방하여 그것을 목사에게 보고하여 성도들의 삶을 자상하게 치리하는 것처럼 목양 장로를 해야 한다.

장로가 제직회의 부장을 해서는 안 된다. 안수집사들에게 맡겨라. 왜냐하면 재정출납과 공과와 봉사는 집사들의 몫이라고 성경과 헌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정책, 기획, 예산을 세우고 제직회의 집행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교회의 신령상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열심히 교우들을 심방하고 시험에 든 자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해, 또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장로의 주 임무이다. 목사의 두 가지 주 임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행6)이라면, 목사가 이 일을 전무(굳게 붙잡는다) 할 수 있도록 장로는 위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를 든든히 부흥 성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장로들은 위의 기능들을 어떻게 감당하여야 하는가? 그 자세에 대해 베드로 장로님이 말씀하셨다. 넓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베드로전서 5:1-5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양 무리를 치되,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셋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들의 본이 되라. 그리할 때 예수님 재림 시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IV. 결론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당회원들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당회가 전제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기득권을 포기 한 채 본인이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인지하여

협력하라는 뜻이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 인격적으로 서로 인정해 주고 세워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피로 값 주어 사신 교회를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셨기 때문이다.(끝)

<생활의 지혜>

비염에 좋은 차 한방차이야기

입춘이 지나면서 부쩍 비염환자가 늘고 있다. 비염은 잘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며 이것이 잘못되면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이다.

비염의 3대증상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이다. 아침이 일어날 때 이 세가지 증상이 모두 있으면 심한 상태이고 한두가지가 있으면 심하지는 않지만 잘 관리해야 한다.

비염을 한방에서는 세 종류로 나누는데,

첫째, 찬 공기에 접촉되면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는 증상을 '비구증'이라고 한다. 이는 급만성 비염증상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기온의 급격한 변화나 겨울철 실내외의 기온차가 큰 곳을 오갈 때, 여름철 더운 실외에서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들어올 때 주로 나타난다.

둘째, 코의 내벽이 부풀어서 생기는 증상을 '비용증'이라고 한다. 이는 비후성비염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폐열이 하강하지 못하므로 울체되어 비점막을 붉게 부풀게 하여 비강이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이다.

셋째, 갑자기 콧속에 가려움을 느끼면서 여러번 연달아 재채기를 하는 것을 '비분증'이라고 한다. 알러지성 비염에 해당되는 증상으로 봄에 꽃가루알러지가 있는 경우나 황사, 미세먼지, 진드기 같은 것이 원인이 된다.

비염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한방차를 소개한다.

1) 도꼬마리차 : 한방에서는 도꼬마리를 창이자라고 한다. 물 300mL에 도꼬마리의 잎, 줄기, 열매를 10g~12g정도 넣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끓인 후 조금씩 마신다. 어린아이의 경우 먹기 어려우므로 끓인 차를 면봉에 묻혀서 코에 자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도꼬마리는 잎과 열매에는 독이 있으므로 과용을 해서는 안되며, 비염으로 인해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목련꽃봉우리(신이화)를 4~8g배합하여 사용하면 더욱 좋다. 도꼬마리차는 피부, 눈, 코, 등의 부스럼이나 가려움증 등 피부병에도 응용할 수 있다.

2) 도라지차 : 도라지는 한방에서 길경이라고 하는데 호흡기 질환에 우수한 약재이다. 도라지는 껍질을 벗겨낸 후 그늘에서 말린다. 1L의 물에 도라지 11g 정도를 넣고 물이 600mL로 줄어들 때까지 끓인다. 하루 세 차례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도라지차는 폐기(肺氣)를 소통시키고 가래를 삭히는 효

능이 있어, 호흡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기관지에 가래가 많은 증상이 동반된 질환에 사용하면 더욱 좋다.(김성준 장로/김한의원 원장·관악중앙교회)

<조직신학>



하나님은 누구신가?(3)

-구약의 신론(神論)과 신약의 신론의 강조점의 차이-

이동영 교수
(조직신학, Dr. theol.)

성경이 인간 및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하나님 개념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 개념 사이에는 서로 다른 강조점들이 존재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출현형태^{Erscheinungsweise}에 고정시키지 않는 반면에, 신약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Jesus von Nazareth}라는 출현 형태에 독특하고 유일하게 단 한번 자신을 고정시키시며, 계시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메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외아들에게 메이시며, 아들 안에서, 아들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심으로 당신의 자유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관찰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 됩니다^{요 4, 8, 16}.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분”^{신 23, 19}이었으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분으로 고백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아도나이’^{אֲדֹנָי}(주님)이셨으나,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아빠’^{אָב}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었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내재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초월성’^{Transzendenz}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그 분의 ‘내재성’^{Immanenz}을 함께 말하고 있으며,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그 분의 ‘초월성’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인간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주님(아도나이)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상관성 속에서 파악되고 인식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신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내재성’은 상호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신론의 강조점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신론	신약의 신론
출현 형태에 고정되지 않음	출현형태 - 예수 그리스도로 단 한번 고정되어 계시됨
어디에도 메이지 않음	아들에 매이고, 아들 안에서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심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인간이 아닌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분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됨 (내재성 함께 말함)	하나님의 내재성이 강조됨(초월성 함께 말함)

주의할 점

구약의 신론과 신약의 신론은 상호대립적으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대의 이단 마르시온^{Marcion}이 이러한 오류에 가득 찬 신론을 열열히 주장하여 고대 교부들인 프랑스 지역 리용의 이레네우스^{Irenaeus von Lyon}와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 von Karthago}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마르시온류의 이단들에 따르면 구약에 나타나는 창조의 신은 잔인한 심판과 정죄의 신이며,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마르시온은 구약성경의 창조의 신을 ‘데미우르고스’^{Demiurgos}라고 불렀고, 이 창조의 신 데미우르고스는 신약성경이 증언하는 사랑의 하나님과 전적으로 다르다고 설파했습니다. 이러한 마르시온의

견해는 당시 지중해에서 상당한 추종자들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시온은 잔인 무도한 창조의 신 데미우르고스를 가르치는 구약성경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르시온과 유사하게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사법' ^{lex ceremonialis}은 폐기되었지만, '도덕법' ^{lex moralis}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여전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여깁니다.

(다음호에 계속)

<외국인물 소개>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 위해 뛰고 싶다

빌리 그레함 손자 로이 그레함 방한

1973년 5월 30일, 여의도 광장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빌리 그레함 부흥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100만 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빌리 그레함



스스로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집회'라고 일컫는 이날의 집회 이후 한국 기독교 인구 증가율이 4배나 빨리 성장했다.

지난 9일, 빌리 그레함의 손자 로이 그레함(빌리그레함전도협의회 기증자부 책임자)이 방한했다. 극동방송 사옥에서 만난 그는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날을 그리워하시고 가장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신다

"고 소식을 전하며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한국에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로이 그레함의 한국 방문을 권유한 것은 그와 함께 동행한 빌리그레함기념관 책임자인 탐 필립스였다.

탐 필립스는 "1985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교회의 부흥과 젊은이들의 열정을 봤다"면서 "내가 느낀 그 감동을 로이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 둘의 이번 한국방문의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이다. 그들은 "많은 분들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복음화를 위해 마음을 합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가능하다면 빌리 그레함 선교대회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 그레함은 "우리 가족의 비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 일을 한국교회가 함께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탐 필립스는 '빌리 그레함 기념관'을 소개하며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위치한 '빌리 그레함 기념관'은 2007년 5월에 개관했다. 탐 필립스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소개하는 곳이다"면서 "그의 전도사역을 통해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결신할 수 있도록 관망하는 동안 11번의 영상과 오디오를 선보이는 데 이를 통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곧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활절 연합예배



상황화 선교의 실례들(3)



배춘섭 교수(선교학, Ph.D.)

구약과 신약성경을 비롯하여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상황화 선교의 실례들이 나타난다. 그 중 신약에서 나타난 상황화 선교의 실례들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케리그마적 상황화를 했다. 쉽게 말해, 그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때 헬라적 배경을 지닌 케리그마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기독교의 세계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야훼’(Yahweh)라는 용어를 헬라인에게 주지시킬 때 그는 ‘퀴리오스’(Kyrios)를 사용함으로써 이방인에게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었다.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Word)을 헬라어의 ‘로고스’(Logos)로 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부여를 이방인들에게 각인시켰다.

둘째, 초대교회는 회심한 유대인에게 유대관습을 강요하지 않고 상황화를 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보면, 타문화권에서 발생된 신앙적 문제에 관해 언급한다.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진리(복음)를 들었던 선교지의 이방인들은 유대문화를 지닌 파송교회의 문화적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행15:10)고 반문하며 문화적 관습보다 “은혜로 받은 복음의 진리”가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그의 주장은 복음을 통해 고넬로 가정에 구원이 임했던 경험에 비추어, 인간의 행위와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인해 구원역사가 성취된다는 구약성서의 언약을 재차 확인하는 신앙고백임을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예루살렘 회의는 문화들 간 관습의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갈등에 대해서 단순히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문화 갈등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제약을 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이 그것이다. 물론 고전 8:7-13절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유대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덕스럽지 못하고 금해야 할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화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영혼구원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제약”을 뒤따라야 한다.

셋째,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상황화를 했다. 바울이 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논의한 주제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타문화권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Judaic Christians)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이방문화의 관습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까?”

바울을 비롯한 누가와 선교동역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장로들을 방문하여 선교사역을 나누었다(행 21:18-19).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말하기를 “이방인 가운데 살아가는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다”고 고백했다(행 21:20).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흠어진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유대관습을 저버리라고 가르친다”는 율법폐기론자로서 오해 받는 상황을 불식시키고자, 복음을 위해 스스로 성전에서 율법의 성결예식을 행하였다(행 21:26). 이런 그의 복음을 위한 결단은 유대인 선교를 맡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행 16:3), 반대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갈 2:3)을 보아도 확실하게 드러난다.

1970년대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기독교 교인들이 함께 모여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다. 유감스럽게도 이제는 연합예배가 퇴색되어 가고 잘 모이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다



개혁신앙의 기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해설(3)

‘교리’, ‘신조’(신앙고백서), 그리고
‘교리문답서’란 무엇인가?



김은수 교수(Ph.D, 조직신학)

우리가 앞으로 계속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교리"(doctrina, doctrine)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여 "각 신앙의 주제들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좀 더 공식화된 교리를 "도그마"(dogma, '교의'라고 번역함)라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규례"(規例)라는 말이 70인역(LXX) 헬라어 성경에서 도그마(δόγμα)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규칙" 또는 "신앙의 규범"(the Rule of Faith)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항목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 교회가 공식적으로 확정하여 선언한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신약교회의 첫 공의회 결정으로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은 사도행전 15:1-21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방인 선교에 따른 할례와 정결규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었다. 이와 같이 신앙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의 표준으로서 공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공표한 것을 특별히 "신조"(Creed, '신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함)라고 한다. 이것은 "크레도"(Credo: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교회의 신앙고백을 공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여 선포한 것을 말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의 표준이 된다. 즉, 신조란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앙고백"이며,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필요불가결한 신앙의 내용을 공식적 언어 형태로 표현하여 특별한 권위를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앙고백들 가운데 세계의 모든 교회가 수납하는 초대교회 공의회의 결정을 특별히 "신조"(Creed)라고 부르는데 반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각 교파들이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든 것을 "신앙고백서"(the Confession of Faith)라고 구별하여 부르는데, 그것은 아마도 각 교파적 특성이 강조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서>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교리문답서"(혹은 "요리문답서"는 '중요한 교리에 대한 문답서'라는 의미)이라는 말은 라틴어로는 카테키스무스

(Catechismus), 영어로는 카테키즘(Catechism)이라는 말의 번역어이다. 이것은 헬라어 "카테케오"(κατηχεω, '울리다', '메아리치다'라는 의미를 가짐)에서 온 말로 묻고 답하기, 또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문답식 교육방법", 또는 그러한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진 "교리문답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답법" 혹은 "대화법" 형식의 교육방법은 고대로부터 소크라테스(Socrates)나 플라톤(Plato)과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흔히 사용되던 중요한 교육 방법이었다. 우리는 신약교회에서도 이러한 문답식 교육이 종종 사용되었음을 찾아 볼 수 있다(cf. 행 18:25: 21:21, 24; 고전 14:19; 갈 6:6). 그리고 교회에서 신조나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그 내용을 간결한 문답형식으로 만든 것을 "교리문답서"라고 한다. 나아가 교리문답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 모든 문답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하거나 암기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묻고 답하는 방식의 교육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이 그 내용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 확인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입술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가는데 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이러한 교육방법을 사용하셨는데, 특히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이러한 문답식 교육방법을 통하여 참된 신앙고백을 이끌어 내고 계심을 알 수 있다(cf. 마 16:13-16).

그러므로 교리문답 교육은 그 모든 항목을 단순히 이해하고 암기하면 마칠 수 있는 기계적인 과정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자신이 믿는바 신앙의 내용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성경은 이르기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 8-10)고 했다.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교리문답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의 기본진리인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요,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엡 4:13-14) 하기 위함이다. 베른하르트 로제(Bernhard Lohse)가 말하듯이, "더 이상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이 고백을 교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은 그 활력을 잃을 것이며, 허약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거나 또는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며, 또한 더 이상 자신의 신앙고백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도 죽은 믿음이다(cf. 약 2:26).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바 올바른 신앙의 내용, 즉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일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에 진정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 *Soli Deo Gloria!*



WESTMINSTER ABBEY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사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by)

그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